| 권두언 |

어려움과 함께 희망이 싹트는 2020년 봄

봄이 왔지만 코로나 확산에 대한 두려움과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경제위기에 대한 공포가 여전해 봄을 실감하기 어렵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으며 지금은 현실화된 경제위기 대책마련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위기에 대응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 냈다. 우선, 3월 6일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 실천방안을 합의하였다. 또한 업종위원회인 보건의료위원회는 3월 19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과 공공의료 확대를 합의하였다. 긴급하게 추진된 노사정 합의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사회분위기와 고용불안 등 경제·사회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과 실천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외에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최근 업종과 의제위원회에서 소중한 사회적 대화의 결실을 맺어 오 있다. 업종위원회 중 해운산업위원회는 지난 2월 20일 해기사 등 선원일자리 창출방안을 합의하였으며 의제위원회 중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지난 3월 2일 산업안전관련 4개 의제들에 대해 최종적인 합의를 조율하였다. 구체적으로 해운산업위원회는 노사정이 해기사 등 국내선원들의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함께 노력하는 방안들을 자세하게 담았다. 예를 들어 한국 해기사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의 기금마련과 해외 전략물자 구매 및 신규선박건조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고용관련 지표 등을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중요한 내용을 논의 중에 있고, 합의에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과로사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데 토대를 만들고, 취약한 중소기업 산재예방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과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서비스업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보호를 위한 방안을 비롯해 중장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행정 체계를 정비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흥준
계간 사회적 대화 편집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번 코로나19 관련 합의 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사회적 대화가 사회적 위기극복을 위한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삶과 경제활동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위기 때마다 온 국민이 힘을 합쳐 국난을 극복한 여러 사례를 가지고 있다. 노사도 힘을 보태 국가적 위기 극복에 주저 없이 나서곤 했다. 1998년과 2009년 경제위기 때마다 노사는 서로의 주장을 잠시 접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협력해 왔다. 이번 노사정합의 역시 노사의 양보와 타협,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수립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업종별·의제별 위원회의 합의는 노사정간의 신뢰수준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현안해결에 한 발 다가간 점에서 의의가 적지 않다. 각 위원회 모두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와 쟁점이 있었지만 결국 원안을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가 가능했는데, 그 과정에서 노사정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의 역할도 컸다. 사회적 대화의 성과가 단시일 동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번처럼 작은 성과를 꾸준히 축적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 남은 과제는 노사정이 최선을 다해 합의한 내용들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노사 합의가 현실에서 결실을 맺게 되면 이후에는 더 어려운 과제들을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돌아보면, 우리의 사회적 대화는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다양한 과정과 경험을 겪어 왔지만 여전히 많은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그럼에도 사회적 대화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많은 국민들은 사회적 대화를 노동과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경사노위가 앞으로도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노동자의 아픔을 대변하며 우리사회의 경제를 굳건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꾸준히 축적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